

<b>주가</b>	<b>환율</b>	<b>금리</b>
-12.98	-2.80	+0.04
1,356.11 (코스피지수)	944.60원 (원/달러)	4.7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80.10	(-6.00)
다우(27일)	12,090.26	(-73.40)
나스닥(27일)	2,350.62	(-28.48)
넷케이	16,351.85	(-317.22)
엔-달러 환율(도코 17:00기준)	117.37엔	(-0.21)
유로 달러 환율	1,2717달러	(+0.20)
3년만기 회사채	5.00%	(+0.04)
클럽금리	4.46%	(-0.01)

##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을 사업비 26억 집행 마무리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단장 서성택)은 최근 순천시와 보성군에 4분기 지원사업비로 1억6천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지원사업비 26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이번 교부된 지원사업비중 1억1천200만원은 순천시 송광면 이율리 원동복지회관 신축사업, 이음교회앞 배수로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4천900만원은 송광면 신흥리 농로포장사업, 보성군 북내면 동교리 외관마을 배수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용된다. 주암댐관리단은 매년 댐 주변 저소득가정의 생계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암댐관리단 박준수 고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광주·전남의 식수원인 주암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여성기업 창업·취업박람회

### 순천시 내일부터 팔마체육관

순천시가 오는 11월 1~2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2006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기업 창업·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관, 취업관, 창업관, 이벤트관 등으로 나눠 50개 부스가 설치되며 5천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신청서를 작성, 참가비를 농협(637-01-232411·여성인력개발센터)에 납부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여성관련기업 20만원, 여성구인기업은 무료, 여성사회교육기관·동아리는 10만원이다. 문의는 순천시 복지여성과(061-749-3054),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061-744-9706).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광주·전남 소비자 實利가 없다

# '걸치레 포장' 보단 실속 통했다

(맛·영양)

- 1 "외제·대형차면 최고"
  - 2 명품없으면 '짜퉁'이라도?
  - 3 "아파트 이름 바꿔주세요"
  - 4 외면당하는 중고시장
- 5 화순 로즈베이커리의 교훈

### 고품질 재료 사용 고집... 영양·정성 업그레이드 해단위서 전국 브랜드 성장... '사랑의 빵' 선행도

국내 빵시장은 바야흐로 전국시대다. 사니·크라온·기린 등 빵업계 메이저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홈 베이킹 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어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다. 군 지역에 분사와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로즈베이커리(화순군 화순읍 대리·사장 김용주)'의 활약상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지난 80년에 설립된 로즈는 제빵업계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의 '견제'를 뚫고 호남을 넘어 경남·북, 충남까지 든든한 판매망을 구축했다. 2004년에는 중국에 제 2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서울 등 수도권 공략을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70명 직원에 연 매출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로즈의 힘은 맛있는 빵에서 나온다. 밀가루와 설탕 등 주요 재료를 품질검사가 까다롭기로 이름난 CJ에서 전량 공급받아 매일 40여종의 빵을 8만~10만개씩 구워 당일 전국 점포에 공급한다. 김용주 사장은 "메이저의 제품에 절대 뒤질 이유가 없다"면서 "메이저 제품이 아니라서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면 그것은 제품수준이 떨어진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사장은 "메이저와 경쟁하려면 소비자들을 순간적으로 현혹시킬 게 아니라 맛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며 "봉지를 여는 순간 코끝을 자극하는 신선하고 고소한 향이 로즈의 생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즈는 일반 제품들이 원가제로 소량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달걀, 버터, 바운드(순유에서 추출한 유지방), 고급 마가린 등을 풍부하게 사용해 빵의 영양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로 인해 로즈와 경쟁을 벌이던 모 메이저 회사는 호남점포 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크리스천인 김 사장을 비롯한 용재(부사장)·용택(공장장)·용철(전무)씨 4형제의 '아름다운 마음'도 로즈의 '빨간 장미' 브랜드를 확산시키는데 한 몫했다. 80년대 초반 군남을 시작으로 지평을 넓히기 시작한 로즈는 한해 광주지역 70~80개 초등학교의 빵급식을 책



로즈베이커리 첨단생산라인에서 위생복을 착용한 직원들이 고소한 빵을 구워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임하면서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16년째 광주와 화순지역의 보육원·양로원 등 15개소에 매주 한차례씩 2천여개에 달하는 '사랑의 빵'을 전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오늘의 로즈를 만든 것은 사랑과 정성으로 빵을 만드는 회사

의 노력과 로즈 빵을 먹고 찾아주는 지역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군 지역에서도 메이저 제빵회사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기아차 3분기 영업손실 874억

## 환율하락·파업에 실적 급락...현대차 순익 감소

### 광주공장 스포티지 수요예측 잘못도 적자 원인

기아자동차는 환율하락과 노사갈등 파업 등으로 인해 지난 2-4분기 15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인데 이어 올해 3-4분기에도 8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광주공장의 경우 주력차종인 스포티지의 잘못된 시장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도 영업손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1~9월 누적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703억원의 손실을 보여 적자도 돌아왔다. 또 기아차의 3-4분기 영업이익률은 -2.5%로, 전분기 영업이익률(-0.3%) 보다 낮아졌다. 특히 기아차는 1999년 현대차 인수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4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이마저도 적자로 전환했다. 기아차의 3-4분기 매출액은 총 3조5천36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3% 늘었으나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21.4% 줄었다. 광주공장의 3-4분기 매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7% 늘어난 반면 전분기 대비 7.5% 감소했다. 기아차는 3-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요인에 대해 파업에 따른 손실, 환율하락 등을 꼽았다. 기아차는 "지난 7-8월 23일간 총 200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 4만8천대, 매출손실 7천300억원 등의 파업손실이 있

었다"며 "또한 원·달러 및 원·유로 환율 등 환율하락으로 매출액 5천500억원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4분기 매출액이 5조8천870억원, 영업이익은 1천832억원, 당기순이익은 2천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31.7%, 당기순이익은 47.1%가 각각 감소한 것이며,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2-4분기(4천9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올들어 3-4분기까지 매출액 19조7천513억원(내수 8조5천109억원, 수출 11조2천404억원)과 영업이익 9조2천789억원, 당기순이익 9천889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7%, 순이익은 40.4%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장갑 필요없는 '골프그립'美특허 획득

### 순천 어머니골프

순천의 한 골프용품 전문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투명 골프 그립'이 골프의 본고장인 미국 정부의 특허를 받으며 본격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됐다. 지난 2003년 일명 장갑이 필요없는 그립 '씨탑(SiTop)'을 개발했던 순천시 씨어머니골프의 대표 남상기(49)씨가 최근 '씨탑'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남 대표가 7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씨탑'은 일반 고무 그립과는 달리 특수

우레탄 재질을 사용, 손에 달라 붙도록 만들어 골프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으며 타격시 충격을 흡수해 골퍼들의 팔꿈치(엘보우) 부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씨어머니골프는 '씨탑' 개발과 함께 일본에 2년간 100만개 수출 계약했고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번 미국 특허 취득 이후에는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중소 혁신포럼 개최 광주·전남 중기청 내달 3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삼성전자 유

종우 부회장이 '글로벌 경쟁과 지역 혁신'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기업의 자세에 대하여 강의한다. 포럼에 참석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이나 유관기관, 학계, 지방자치단체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062)360-9110.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좋은 사람, 좋은 여백 ~ 상주는 여백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이 광고 유체 특유의 특색입니다)

중국/일본	대만/타이	미국/대양주/유럽
<p><b>기아자동차</b></p> <p>기아자동차는 환율하락과 노사갈등 파업 등으로 인해 지난 2-4분기 15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인데 이어 올해 3-4분기에도 8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p>	<p><b>대만/타이</b></p> <p>대만/타이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분석.</p>	<p><b>미국/대양주/유럽</b></p> <p>미국/대양주/유럽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분석.</p>

**상주·영남 부동산 전문기업**

상주·영남 부동산 전문기업의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 소개.